"교육콘텐츠에 생성형 AI 접목…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 도약"

웅진씽크빅 미디어 콘퍼런스

챗gpt 중심 생성형 AI 도입 방침
네이버 지속 협의… 신뢰성 검증
이재진 대표 "기존 학습한계 극복"

웅진씽크빅 이재진 대표가 15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회사의 '생성형 AI 도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웅진씽크빅

웅진씽크빅이 교육 콘텐츠에 증강현실(AR), 메타버스에 이어 챗gpt를 중심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까지 접목해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으로 추가 도약한다.

웅진씽크빅은 15일 서울시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The Next Edutech-생성형AI를 더하다'를 주제로 미디어 콘퍼런스를 열고 '생성형AI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이재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세계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몰입'이 화두가 됐다. 몰입을 통해 학습효과를 어떻게 증대하느냐가 에듀테크의 목적이 된 것이다. 기존의 '인강'을 벗어나 온라인 학습과 지면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생성형 AI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웅진씽크빅은 대표 AI학습 플랫폼인 '웅진스마트올'의 대화형 시스템(챗봇)에 신기술 생성형AI를 적용해 폭넓은 개인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AI 클로바에 생성형 AI를 더한 '하이퍼클로바X'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 하이퍼클로바X 출시 시점이 오는 7월인 만큼 웅진씽크빅의 관련 서비스 역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챗GPT의 신뢰성 검증 문제에 대해선 네이버와 지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외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집중적으로 웅진씽크빅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는데 환경이 잘 구성돼 있다"며 "하이퍼클로바X 출시 이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에듀테크 시장을 지속 선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AR, AI, 메타버스 등에 대한 연간투자액이 300억원이 넘는다. 프리랜서와 오픈 이노이노베이션 인력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600명 이상의 (IT 관련)인원이 같이 일하고 있다"며 "회원수, 특허, 투자 모두 업계 1위로 기술적으로 앞서고 있기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격차는 더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웅진씽크빅은 생성형AI 도입을 통해 교육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 웅진스마트올에 동작하고 있는 웅진씽크빅 자체 AI가 학습자의 나이, 관심사, 지식 범위, 어휘력 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생성형AI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제, 상황에 따라 맞춤 대화를 진행한다.

스마트올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에서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소설 작가, 화가, 고고학자 등 생성형AI가 접목된 다양한 NPC(Non-Player Character)들을 통해 대화만으로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오늘의 책을 추천하던 기존 'AI맞춤 투데이' 기능도 더욱 고도화한다. 글쓰기 첨삭, 영어 문법 첨삭, 영어 AI스피킹 튜터, 원어민 AI와의 자유 회화 등 학습을 돕는 다양한 AI기반 서비스 오픈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기존 서비스로는)아이들의 흥미를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고 데이터를 보며 대답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시나리오 작가들이 계속 메우고 있는 상태였다"며 "생성형 AI가 되면서 그동안 원하는 만큼 못해주던 부분의 수준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웅진씽크빅은 또 메타버스와 생성형AI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 웅진스마트올 학습 콘텐츠를 메타버스 공간에 옮겨놓은 '스마트올 메타버스' 사용률은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메타버스 도입 이후 학습완료율 19%, 도서 완독율 14%가 상승했다. 지난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도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이 대표는 "메타버스를 통해 '게이트웨이' 역할만 했는데도 몰입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며 "챗GPT가 메타버스와 연결되면 폭발력이 있을거라는 전문가들의 말에 공감하고 서비스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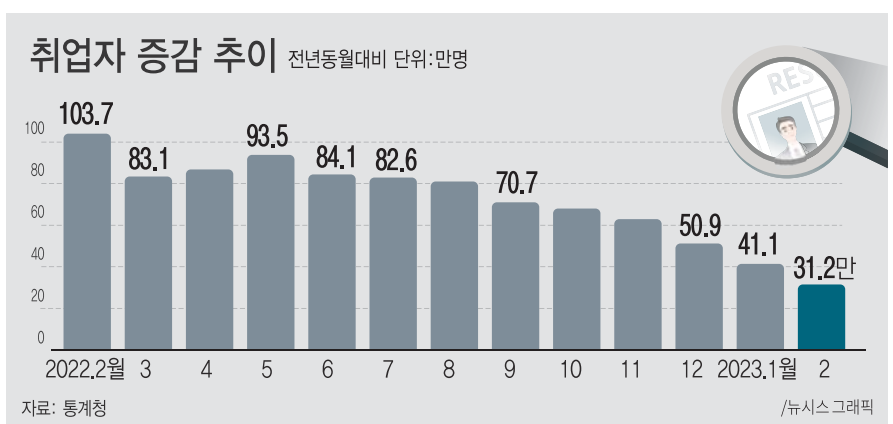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고용시장 '춘래불사춘'… 취업자 수 증가폭 2년만에 최저

〈春來不似春〉

통계청 2023년 2월 고용동향

취업자 수 전년比 31.2만명 ⬆
고용률 61.1%, 실업률 3.1%



지난 달 취업자 수가 31만20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2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이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한파가 여전해 고용시장에는 아직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춘래불사춘'이란 지적이다.

통계청의 15일 '2023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7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2000명(1.1%) 늘었다. 반면, 증가 폭만 보면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작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업자 감소 이후 증가 규모가 가장 많이 축소됐다. 이는 올해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 지난해 2월 취업자가 103만7000명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5월(93만5000명) 이후 6월(84만1000명)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7월(82만6000명), 8월(80만7000명), 9월(70만7000명), 10월(67만7000명), 11월(62만6000명), 12월(50만9000명), 올해 1월(41만1000명)에 이어 지난 달까지 9개월째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2만5000명 감소하며 4개월째 내림세다. 감소 폭은 2021년 2월(-14만2000명) 이후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은 45.5%로 2021년 2월(42.0%)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60세 이상은 41만3000명 증가했다. 60대 이상 일자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취업자 수는 10만1000명 감소했다. 50대와 30대 취업자도 각각 7만7000명, 2만4000명 늘었지만, 20대와 40대가 각각 9만4000명, 7만7000명 줄었다.

전체 고용률은 61.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달 실업자는 8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6.7%) 감소했다.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포스코

강제징용 배상기금 40억 출연

포스코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기부금 40억원을 출연했다.

포스코는 15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기금에 4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6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2년 3월 포스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2016년 1차로 30억원, 2017년 2차로 30억원 등 60억원은 이미 출연했다.

/양성운 기자 ysw@

농식품부-aT, 'NPEW 2023' 참가

인삼·대체육 등 건강한 'K-푸드' 전파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 현장 시식 /aT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미국 애너하임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2023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NPEW 2023)'에 한국관을 개설, 참가해 K-푸드의 매력을 홍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는 전 세계 130개 국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바이어 전문 식품 박람회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내추럴 식품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평가된다.

aT는 이번 박람회에서 미국 내 트렌드로 자리 잡은 K-푸드의 건강함을 알리기 위해 국내 우수 수출업체 29개 사와 '한국관'을 구성하고, 푸드테크 비건식품을 비롯해 소스류, 차류, 인삼류, 가정간편식(HMR) 제품 등 다양한 수출 유망상품을 선보였다. 특히, 면역력 강화를 키워드로 한 알로에, 유산균,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신선 배, 딸기, 샤인머스캣 등 'K-프레시'만의 차별화된 맛과 향으로 바이어들을 사로잡았다고 설명했다. K-콘텐츠 열풍과 함께 관심이 급증한 'K-스트리트 푸드'와 각종 소스류, HMR 제품, 소주 등도 현장을 찾은 바이어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 세계 식품 시장의 최대 화두로 자리 잡은 '식물기반(Plant-based)' 식품을 알리고자 불고기·갈비 대체육부터 식물성 참치까지 다양한 푸드테크 비건식품을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고 aT는 전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식물성 고기를 사용한 김치볶음밥, 불고기·갈비 쌈밥, 떡갈비 김치버거, 핫도그, 만두 등 다양한 조리 시연과 시식행사를 진행해 한국관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에서 K-푸드를 향한 관심과 인기는 이미 K-콘텐츠와 함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며 "K-푸드가 건강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 미국 주류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상담 지원, 현지 마케팅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중기부

2020년 여성기업 295만개

'여성 사장'들의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지고 왕성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발표한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기업이 295만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은 69.3%로 여성기업이 여성 고용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기업 수는 전년보다 6.4% 늘었다. 전체 730만개 중 40.5%가 여성기업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소매업(26.7%), 부동산업(22.6%), 숙박·음식점업(17.0%)이 전체의 6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는 전년까지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법인·개인을 함께 조사해 시계열 비교는 법인기업만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